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政策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시아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3460-1001, 1114 / FAX : 02)3460-1122, 1199
URL : <http://www.kiep.go.kr>

지역리포트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 (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 厚 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EMU)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스네이크 제도, 유럽통화제도(EMS) 등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경제·통화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마침내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EMU의 세부적인 절차는 마스트리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상기 조약은 소위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제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만이 EMU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는 2001년 1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받아들임으로써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 6월에 EMU 1차 가입국을 결정할 당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리스는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EMU 가입을 최대 목표로 삼고, 공기업 민영화, 세원 확대, 재정 긴축 등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심도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EU국 중 EM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로 이들은 국민의 반대로 EMU 가입을 보류하고 있으나, 향후 EMU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EMU 가입에 필요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영국의 통화는 덴마크 통화와는 달리 ERM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ERMⅡ 참여가 EMU 가입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므로 이들은 통화를 ERMⅡ에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영국과 스웨덴에게는 ERMⅡ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스의 EMU 가입은 미가입 3개국 국민여론에 별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2000년 말 실시된 덴마크 국민투표 결과의 파급효과가 더 컸다. 당시 그리스에 EMU 가입이 결정된 상태에서 덴마크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덴마크 국민은 EMU 가입을 반대하였으며, 덴마크의 국민투표 후 영국과 스웨덴의 EMU 가입 반대의견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EMU 미가입 3개국은 EMU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의 국민투표 실패로 새로운 덴마크 정부 뿐만 아니라 영국 및 스웨덴 정부도 향후 국민투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졌다. 그러므로 이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EMU 가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그리스의 EMU 가입은 EMU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EMU는 출범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확대는 향후 EU 가입후보국들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EU 가입후보국들의 EU 가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EMU 가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MU에 앞서 후보국들이 EU에 먼저 가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EU와 후보국들 사이에 EU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국들 중 31개 분야 중 22개 분야의 협상이 잠정 종료된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성적이 좋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이르면 2004년 초에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EU에 가입한 이후 곧바로 ERMⅡ에 가입하면, EMU 가입도 이르면 2006년에 이루어질 수 있다.

후보국들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마스트리트 경제수렴기

준에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등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보국들 중 EMU 가입 조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 후보국들은 성공적인 EMU 가입을 위해 마스트리트 수렴조건 이외에도 EMU 관련 EU 가입규약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자본이동의 자유화 정도가 취약한 점 등 아직까지 실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 그러므로 후보국들의 EMU 가입은 EU에 가입한 이후에도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리스의 가입으로 EMU는 회원국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로화 사용 지역과 인구도 증가하는 등 EMU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 EMU가 중·동구로 확대되면 거대한 경제·통화동맹의 출현을 의미하는바, 이것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EMU와 유로화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차 례

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9
제2장 EMU의 발전과정과 가입요건	11
1. EMU의 발전과정	11
2. EMU 가입조건	13
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13
나. ERMⅡ	16
제3장 그리스의 EMU 가입	19
1. EMU 출범 전 그리스의 경제수렴조건 충족 현황	19
2.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	20
3. 그리스의 EMU 가입	24
제4장 EMU 확대 전망	29
1. EU 가입국	29
가. 영국	29
나. 덴마크	35
다. 스웨덴	37
2. EU 가입후보국	38
가. EU 가입후보국들의 EMU 가입 절차	39
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여부	41
다. EU 가입규약 충족 여부	43

제5장 EMU 및 유로화 위상 변화	46
제6장 결론	49
참고문헌	55
Executive Summary	57

표 차례

<표 2-1>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14
<표 2-2>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정부부채잔액 감소 추이	16
<표 2-3> ERM과 ERMⅡ의 공통점과 차이점	18
<표 3-1> 구조기금의 국별 할당액	21
<표 3-2>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잔액	26
<표 3-3> 그리스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여부	28
<표 4-1> 유로화에 대한 영국 국민의 여론조사	30
<표 4-2> 유로화 도입을 위한 영국의 5가지 기준	33
<표 4-3> 스웨덴의 경제수렴조건 충족현황	38
<표 4-4> 코펜하겐 조건	40
<표 4-5> 중·동구 10개 후보국들의 EU 가입협상 추이	41
<표 4-6> EU 후보국들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현황	42
<표 4-7> EU 후보국들의 환율제도	44
<표 5-1> 그리스가 포함된 유로권의 거시경제지표	46
<표 5-2> EMU 확대: 핵심경제지표 전망	47

그림 차례

<그림 3-1> 그리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22
<그림 3-2> 그리스의 물가상승률 추이	25
<그림 3-3> 드라크마화 환율 추이	26
<그림 3-4> 그리스의 장기금리 추이	27
<그림 4-1> 크로네/유로 환율 추이	36

제1장 서론

1999년 1월 유럽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하 EMU라 함)과 유럽단일통화 ‘유로(Euro)’는 11개국¹⁾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EMU의 출범은 EU 회원국들이 반세기에 걸쳐 완성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단일통화 유로화의 출현으로 회원국 통화의 환율은 불가역적으로 고정되었으며,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EMU 회원국을 대표하여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로화 환율은 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로화가 아직까지 장부상 화폐에 머물고 있으며, 유로화 주화 및 지폐가 일반인에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로화 협금이 통용되면 유로화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며,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EMU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화 통용에 앞서 그리스는 2001년 1월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받아들임으로써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1998년 6월에 EMU 1차 가입국을 결정할 당시 EMU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리스는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성공적인 경제개혁과 이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그리스의 EMU 가입은 EMU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EMU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회원국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확대

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는 향후 EMU에 참여하게 될 EU 회원국과 EU 가입후보국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후보국인 중·동구 국가들에게 가장 큰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들의 EU 가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EMU 가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MU에 앞서 이들은 먼저 EU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EMU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지금까지 국민의 반대로 EMU 가입을 보류하고 있으나, 향후 EMU 가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통화와는 달리 스웨덴과 영국의 통화는 ERM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EM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를 ERMⅡ에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ERMⅡ의 가입시기 결정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스의 가입으로 EMU는 회원국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로화 사용 지역과 인구도 증가하는 등 EMU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 EMU가 중·동구로 확대되면 거대한 경제통화동맹의 출현을 의미하는 바, 이것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EMU와 유로화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스네이크 제도에서부터 EMS 등 최근까지의 EMU의 발전과정과, EMU 가입요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그리스의 EMU 가입을 다룰 것인데, 그리스가 EMU 가입을 위해 어떠한 경제개혁을 하였으며,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전과 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EMU 확대전망을 EU 회원국과 EU 가입후보국으로 분류해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5장은 EMU 확대에 의한 경제권과 유로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앞서 살펴본 그리스의 EMU 가입이 EMU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EU 회원국과 향후 EU 가입국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EMU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과 수렴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EMU 예상 가입시기와 문제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제2장 EMU의 발전과정과 가입요건

1. EMU의 발전과정

EMU의 첫 시도는 스네이크(snake)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무너지면서 1972년에 탄생한 것으로 당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역내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고정환율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회원국 통화의 對달러 중심환율의 환율변동허용폭을 2.25%로 제한하고, 중심환율이 환율변동허용폭 한계에 이를 때에는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이 변동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통화가 달러화에 대해 변동하는 모습이 마치 '터널 속에서 뱀(snake in the tunnel)'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스네이크 제도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스네이크 제도는 6개 EC 회원국²⁾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후에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4개국도 참여하였으나, 문제점³⁾이 하나 둘씩 표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지 못하였다.

스네이크 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자, EC 회원국들은 보다 강력한 환율안정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가 창설되었다. EMS은 궁극적인 유럽경제·통화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와 환율조정기구(Exchange Rate Mechanism; ERM)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ECU는 EC 9개⁴⁾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3) 1973년 오일 쇼크와 함께 EC 회원국들의 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각기 상이한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정책갈등이 발생함.

4)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회원국 통화의 혼합인 복합통화인데, 당시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책정된 가맹국통화를 구성통화로 하는 것이었다. ERM은 스네이크 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각 EMS 회원국의 통화가 對ECU 중심환율에 따라 환율변동허용폭($\pm 2.25\%$) 이내로 통화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었다. 두 회원국 통화 상호간의 중심환율이 환율변동허용폭 한계에 이를 때면, 양국의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개입하여 변동허용폭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었다. EMS은 19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EC 회원국 통화가 환율 안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으나, 스네이크 제도에서처럼 문제점이 가시화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 가장 정책 갈등이 심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의 회원국 통화가 ERM을 탈퇴하고 환율변동허용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중반 EMS 성과에 힘입어 EC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당시 단일시장의 창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화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럽의 시장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애 요인 해소도 중요하지만 통화통합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MU는 1989년에 발표된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는데, 동 보고서는 EMU 창설을 3단계로 나눠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스트리트 조약(Maastricht Treaty) 체결로 통화통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즉 EMU를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면서 EMU에 대한 박차가 가해졌다.⁵⁾

1998년 중순 EMU 1차 참가국 11개국이 경제수렴조건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EMU는 1999년 1월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출범하였다. 유로화 현금통화의 유통은 3년 후인 2002년 1월에 개시될 예정이다. 그리

5) 제1단계(1990. 7. 1~1993. 12. 31): 자본거래 자유화와 회원국간 경제정책 수렴 노력; 제2단계(1994. 1. 1~1998. 12. 31):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 창설과 EMU 출범 준비; 제3단계(1999. 1. 1~): 공동통화정책 실시, 단일통화 도입.

고 2001년 12월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각 회원국 중앙은행에게 유로화를 조기공급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단일통화가 출현함으로써 EMU는 완성될 것이다.

2. EMU 가입조건

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EU는 EMU를 결성함으로써 경제·통화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단일 통화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트 조약은 EMU의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면서 EMU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소위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만 진입하도록 하였다. 또,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국가가 2개국을 넘으면 이들 국가만으로 경제·통화동맹을 결성할 계획이라고 명시하였다.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은 물가, 금리, 재정, 환율인 4가지 거시경제지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EMU에 참가하는 회원국들이 경제운영 환경을 동질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표 2-1 참조). 이는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OCA)⁶⁾을 결성하기 위해 서로 비슷한 경제환경을 지닌 국가들이 통화동맹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국의 이익도 높다는 데 토대를 둔 것이다.

6)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국가가 단일통화 내지 고정환율제를 채용, 하나의 통화권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지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통화권을 최적통화지역이라고 함.

〈표 2-1〉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구 분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물 가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 +1.5% 포인트 이내
금 리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명 목장기금리 +2.0% 포인트 이내
재 정	재정적자가 명목GDP의 3% 이내
	정부부채잔액이 경상GDP의 60% 이내
환 율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은 ERM의 환율변동허용 폭 이내로 유지하되, 최근 2년간 각 회원국 통화간에 설정된 중심환율 고수

상기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은 거시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명목(nominal)수렴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거시경제적 접근 없이 통화통합이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조건은 이론적으로 최적통화지역을 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회원국들 사이에 명목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실물조건 수렴도가 취약할 경우에는 경제·통화동맹이 결성된다 하더라도 분명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먼델(Mundell)의 모형에서는 생산요소, 특히 노동의 이동이 최적통화지역의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은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⁷⁾ 실제로 EU내 노동 이동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국의 경제수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명목수렴조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과 성장률, 노동의 이동성과 실업률, 경상 수지 등과 같은 실질조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7) De Grauwe(1997), pp 5~19.

현재 EMU 가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질조건의 충족이 전제가 되지 않고 있다. 즉 회원국의 실질조건에 대한 수렴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EM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98년 EU 회원국들은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모여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의 충족여부에 따라 EMU 참가국을 선발하였는데, 11개국이 초기 참가국으로 선정되었다. 1차 참가국을 결정할 당시 최대한 많은 국가를 EMU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몇 항목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환율조건은 핀란드와 이탈리아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핀란드의 마르카(markka)화는 1996년 10월에 ERM에 가입하였으며, 이탈리아의 리라(lira)화는 1996년 11월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평가시점까지 각각 16개월과 15개월 동안 ERM에 가입한 셈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였다.

또 재정조건 충족 여부는 예외규정의 해석을 통한 EU 회원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재정적자에 관한 예외규정은 i) 재정적자의 對GDP 비율이 계속 크게 낮아져 기준치인 3%에 근접한 경우 또는 기준치 초과가 일시적,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 3% 기준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다는 점, ii) 정부채무잔액의 對GDP 비율이 충분히 낮아져 만족할만한 수준으로서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 60% 기준의 적용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의 해석을 확대하여 정부부채잔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벨기에와 이탈리아에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다. <표 2-2>는 1990~98년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정부부채잔액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벨기에의 정부부채가 GDP대비 122.2%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는 121.6%를 기록하고 있어 기준치인 60%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부

채잔액은 199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고려되어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1차 참가국에 포함되었다.⁸⁾ 특히 이들은 EU 창립국으로 EMU 1차 참가국에서 제외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은 명목조건으로 EU 회원국의 최적통화지역을 결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에게 물가기준이나 재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EMU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유럽중앙은행의 최대 목표인 물가안정을 지키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2)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정부부채잔액 감소 추이(GDP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¹⁾
벨기에	125.7	127.5	129.0	135.2	133.5	131.3	126.9	122.2	118.1
이탈리아	98.0	101.5	108.7	119.1	124.9	124.2	124.0	121.6	118.1

주: 1) 당시 1998년 전망치임.

자료: EMI(1998), *Convergence Report*.

나. ERM II

ERM II는 기존 ERM가 변형된 환율제도로 EU 내 EMU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통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RM II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ERM에서와 마찬가지로 對유로 중심환율에 따라 환율변동허용폭인

8) 1997년 기준으로 정부부채 잔액이 GDP의 60% 이내인 국가는 프랑스(58.0%), 룩셈부르크(6.7%), 핀란드(55.8%), 영국(53.4%) 등 4국뿐이며, 재정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pm 15\%$ 이내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유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간의 중심환율이 변동허용폭의 한계에 달하면,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은 변동허용폭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ERM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의무화한 반면, ERM II는 중앙은행의 개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ERM과 ERM II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ERM II의 환율변동허용폭은 $\pm 15\%$ 이다. 그러나 유로권과 충분한 정도의 수렴이 가능한 회원국은, 유로화에 대해 $\pm 15\%$ 보다 좁은 환율변동폭을 유지할 수도 있다. 현재 ERM II에 참여하고 있는 덴마크의 크로네화는 유로화에 대해 더 좁은 폭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ERM II의 변동폭은 ERM의 $\pm 2.25\%$ 변동폭보다는 상당히 넓은 것이다. 이렇게 환율변동허용폭이 넓다는 사실은 ERM II가 유연한 환율조정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EU 가입국 즉, 중·동구 유럽 국가들의 ERM II 가입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RM II 참여는 EMU 가입 조건 중 하나이지만 EU 회원국 자율에 맡겨 있다. 현재 ERM I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1개국뿐이며, EU 회원국이나 스웨덴과 영국은 아직까지 ERM II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표 2-3〉 ERM과 ERMII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M과 ERMII 모두 중심환율과 환율변동허용폭이 있음. - 환율변동허용폭이 ±15%임. - 중심환율이 변동허용폭의 한계에 달할 때 중앙은행은 개입해야 함. - 공동절차에 따라 중심환율이 조정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M은 EMS하에 있는 EU의 기본환율제도인 반면, ERMII는 EMU 출범후 추후 가입희망국을 배려한 임시환율제도임. - ERM은 모든 참가국 통화간의 환율을 취급하였으나(multi-lateral links) ERMII는 유로화와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만 취급함(bilateral links). - ERM의 실질적인 핵심통화가 독일 마르크화였던 반면 ERMII의 핵심통화는 유로화임. - ERM은 중심환율이 변동허용폭의 한계에 달할 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을 의무화한 반면, ERMII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의무를 완화함.(즉 물가안정의 목표가 안전하지 못할 때 개입을 중단 있음). - ERM은 중심환율 조정을 엄격히 제한한 반면, ERMII는 중심환율의 보다 신속한 조정을 허용하는 등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음(중심환율의 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자료: EMI(2000), *Convergence Report*.

제3장 그리스의 EMU 가입

1. EMU 출범 전 그리스의 경제수렴조건 충족 현황

1998년 중순, 유럽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와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는 1997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EMU 1차 참가국을 선별하였으나 그리스는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어느 항목도 충족하지 못하여 제1차 가입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EMU 제1차 참가국에서 제외된 국가는 그리스 이외에도 스웨덴, 덴마크와 영국이었는데, 상기 3개국은 국민의 반대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EMU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서, 그리스의 상황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다음은 4가지 경제수렴조건별로 그리스의 실적과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표 3-3 참조).

첫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오스트리아(1.1%), 아일랜드(1.2%)와 프랑스(1.2%)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평균은 1.2%, 기준치는 2.7%로 결정되었다.⁹⁾ 비록 그리스는 1990년 20%를 웃돌았던 물가상승률을 몇 년 사이에 억제하는 데 성공하여 평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상기 조건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이 충족하였다.

둘째,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1996년 GDP의 7.8%에서 1997년 GDP의 4.6%로 상당히 감소된 수준이었으나 마스트리트 기준인 3.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정부부채잔액도 경상GDP의 108.7%로 기준치인 60%를 훨씬 넘고 있었다.

셋째, 환율과 관련, 평가기간인 1996년 3월~98년 2월 그리스의 드라크

9) 평가 기간은 1997년 2월부터 1998년 1월까지였음.

마화는 ERM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환율도 몹시 불안정하여 그리스는 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리 기준에서도 그리스는 미달되었다. 그리스의 장기금리는 9.8%를 기록하였는데, 금리가 가장 낮은 세 회원국은 오스트리아(5.6%), 프랑스(5.5%), 아일랜드(6.2%)로, 이들의 평균은 5.8%, 기준치는 7.8%로 정해짐에 따라 그리스의 장기금리는 기준치를 2.0% 포인트를 넘고 있었다.¹⁰⁾

2.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

그리스는 비록 EMU가 출범하는 1999년에 EMU 1차 참가국이 되지 못하였으나, 유로화가 통용되는 2002년 전에 EMU 가입을 목표로 삼고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 코스타스 시미티스(Costas Simitis)가 정부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2001년 EMU 가입을 최대 정책 과제임을 공표하고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그리스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불가피하였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그리스 국민들의 70% 이상이 EMU 가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가 여느 회원국을 능가하였다. EMU 가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가 EMU 가입으로 경제적 상승 및 기타 회원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리스는 EU 15 회원국 중 포르투갈과 함께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국가로서,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0) 평가 기간은 1997년 2월~1998년 1월임.

또한 그리스는 EU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의 수혜국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이와 같은 EU 기금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표 3-1>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¹¹⁾의 국별 할당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의 1인당 금액은 1,984,567유로에 달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EU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EMU 가입을 찬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표 3-1) 구조기금의 국별 할당액(2000~2006년)

순위	국가	총금액(백만유로)	1인당 금액(유로)
1	그리스	20,961	1,984,567
2	포르투갈	19,029	1,899,291
3	스페인	43,087	1,090,423
4	아일랜드	3,088	807,109
5	이탈리아	28,484	493,425
6	핀란드	1,836	354,166
7	독일	28,156	343,031
8	영국	15,635	260,678
9	프랑스	14,620	238,978
10	스웨덴	1,908	214,743
11	오스트리아	1,473	181,515
12	벨기에	1,829	177,745
13	룩셈부르크	78	175,044
14	네덜란드	2,635	164,543
15	덴마크	745	139,122
	EU 15	183,564	60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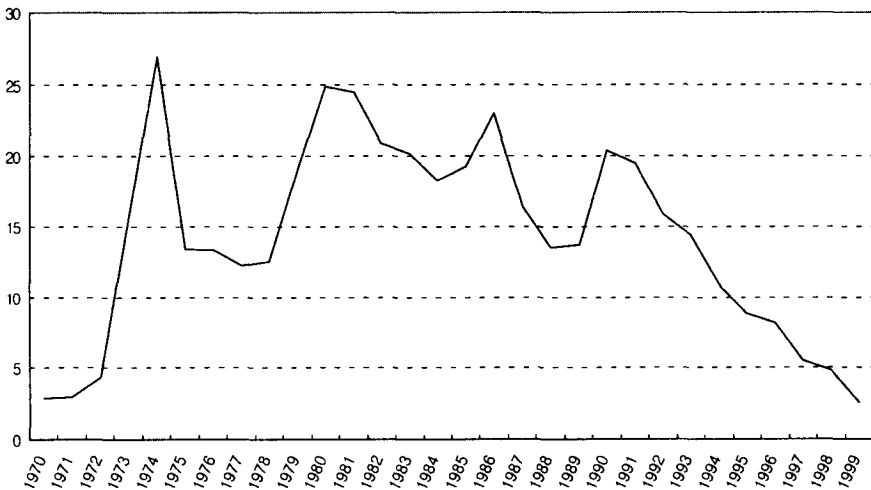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Available: http://europa.eu.int/comm/regional_policy/ag_2000/finan_en.htm)

그리스 정부는 우선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11) 구조기금은 EU의 지역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 및 문제지역의 구조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것으로, 2000~2006년 예산은 총 1,950억 유로에 달하며 EU 총예산의 1/3, EU 총 GDP의 1.27%(1999년 기준)에 해당함.

물가상승률 억제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그림 3-1>은 1970~99년 사이의 그리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물가는 1970년대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까지 2자리 수를 유지해왔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19.5%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높은 물가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주된 요인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과도한 통화 공급의 증가량이라 할 수 있다.¹²⁾

<그림 3-1> 그리스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1970~99년)



자료: DRI-WEFA(2001), *The World Outlook*.

높은 물가상승률을 시정하기 위해 우선 그리스 중앙은행은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임금상승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스의 노동 임금은 1990년대 초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는데, 노동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여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에 악영향을

12) Nicholas G. Pirounakis(1997), pp. 94 ~ 101.

미쳤다.¹³⁾ 또 그리스 정부는 간접세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 말에는 석유, 난방용 기름, 전기, 자동차 등에 대한 간접세가 축소되었다. 금융 시장, 통신시장 등을 자유화함으로써 가격 하락을 유도하였다.

물가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기타 그리스의 거시경제지표도 개선되었다. 특히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1994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리스 정부가 수입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출을 감소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재정적자는 1980년대부터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GDP의 40% 정도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한 결과인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지출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이 시기에 그리스의 공공부문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최근까지 그리스의 지나치게 큰 공공부문이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그리스의 공공부문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 오래 전부터 정부의 큰 부담이 되었다. 1998년 초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공공부문은 총 GDP의 60%, 전체노동인력의 25%를 차지하였다.

우선 그리스 정부는 세원을 확대하고 탈세를 최대한 줄여 세수를 늘렸다.¹⁴⁾ 그리고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민영화에 착수하였다. 민영화 관련법을 개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인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리스 공기업인 통신(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sation; OTE), 석유(Hellenic Petroleum Organisation; HP), 수도(Athens Water and Sewage Company; EYDAP) 공사 등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영화 작업은 1990년대 말 가속화되었으며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결과를

13) 1974~95년 제조업 분야에서 노동 임금이 평균 3% 상승한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1.9% 상승하는데 그침.

14) 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리스의 탈세 행태와 세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함. 그리스는 오는 2002년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계획하고 있음.

났었다.

물가가 EU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그리스의 장기금리도 하락하였다. 드라크마 환율 안정과 그리스의 재정 상태 호전도 그리스 금리하락에 일조를 하였다. 특히 그리스 중앙은행의 환율정책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서 그리스 금리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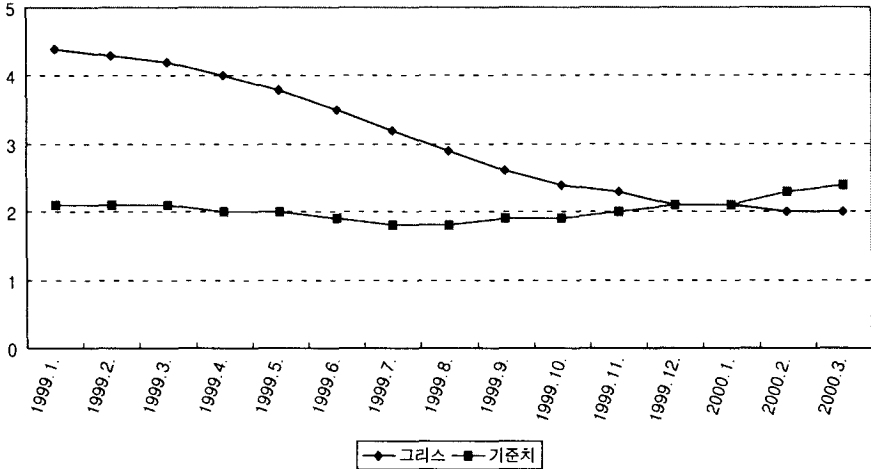
3. 그리스의 EMU 가입

시미티스 정부가 경제개혁을 가속한 결과 마침내 그리스는 마스트리트 수렴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리스는 유럽집행위원회에게 수렴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스웨덴과 그리스에 대해 수렴보고서(convergence report)를 작성한 결과 그리스가 마스트리트 수렴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¹⁵⁾ 그리고 2000년 중순 그리스의 2001년 EMU 가입이 결정되었다. 다음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항목별로 그리스의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첫째, 그리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가기간인 1999년 4월~2000년 3월 동안 평균 2.0%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오스트리아(0.9%), 프랑스(0.9%), 스웨덴(0.8%)의 평균은 0.9%로 책정되었으며, 기준치(reference value)는 2.4%로 결정됨에 따라 그리스의 물가상승률은 기준치 이하로 하락하였다. 한편, <그림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의 물가는 평가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1999년 12월 이후부터 상기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하였다.

15) 예외조항(opt-out clause)으로 영국과 덴마크는 수렴조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그림 3-2〉 그리스의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0), *Convergence Report*.

둘째, 1999년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GDP의 1.6%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마스트리트 기준인 3.0% 이하로 하락하였다. 또한 정부부채 잔액은 104.4%로 비록 GDP의 60%를 상회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표 3-2>에 따르면, 1995년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잔액은 각각 GDP대비 10.2%와 108.7%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에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정부부채잔액 항목은 벨기에와 이탈리아에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듯이 그리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감소추세가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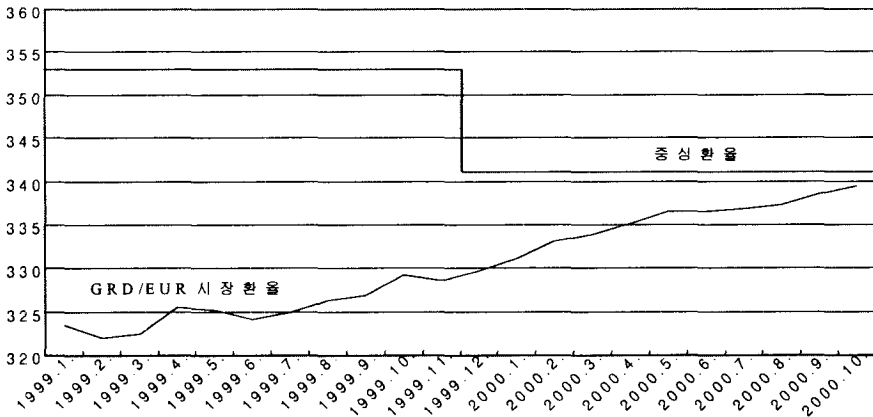
〈표 3-2〉 그리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잔액(GDP 대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정적자	-10.2	-7.8	-4.6	-3.1	-1.6	-1.3
정부부채잔액	108.7	111.3	108.5	105.4	104.4	103.7

자료: *Ibid.*

셋째, 1998년 3월 그리스는 드라크마화를 ECU에 대해 12.1% 평가절하함과 동시에 ERM에 가입시켜 환율안정에도 성공하였다.¹⁶⁾ ERMⅡ의 환율변동허용폭이 비교적 넓은 ±15%로 정해져 있으나, 1999년 중순부터 드라크마 환율은 조금씩 중심환율에 접근하였다. <그림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1월 약 320을 기록하던 드라크마/유로 환율은 중심환율인 353.109로 가까워졌으며, 2000년 1월 중심환율이 340.75로 절상되면서 드라크마 환율과 중심환율의 격차는 더욱 좁혀졌다.

〈그림 3-3〉 드라크마화 환율 추이(GRD/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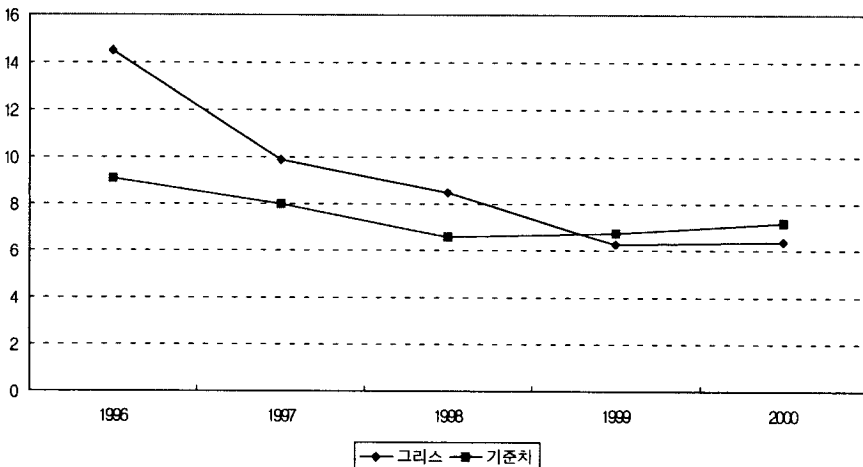


자료: ECB, *Monthly Bulletin*.

16) ERM은 1999년 1월 ERMⅡ로 전환되면서 그리스는 자동적으로 ERMⅡ에 가입하게 되었다.

넷째, 1996년 14.5%를 기록하던 그리스의 장기금리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평가기간인 1999년 4월~2000년 3월 동안 6.4%를 기록하여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동 기간 가장 낮은 금리를 기록한 회원국은 프랑스(5.0%), 오스트리아(5.1%), 스웨덴(5.4%)로, 이들의 평균은 5.2%, 기준치는 7.2%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EMU 가입이 결정된 이후에도 그리스의 장기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으며, 2000년 말에는 유로권 평균까지 하락하였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그리스의 장기금리 추이(%)



주: 2000년 수치는 1999년 4월~2000년 3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Ibid.

이와 같이 그리스는 모든 EMU 가입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2001년 1월 정식 회원국으로 EMU에 가입하였다.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리스는 2년 사이에 물가, 금리, 재정, 환율의 4가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스 환율은 1유로당 340.75드라크마로 결정되었으며, 그리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ECB에 위임하게 되었다.

〈표 3-3〉 그리스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여부

(단위: %, 연리 %)

	1998년 3월		충족여부	2000년 3월		충족여부
	기준치	그리스 실적		기준치	그리스 실적	
물가	2.7	5.2	×	2.4	2.0	○
금리	7.8	9.8	×	7.2	6.4	○
재정	-3.0	-4.0	×	-3.0	-1.6	○
	60.0	108.7	×	60.0	104.4	○
환율	ERM 가입	ERM 미가입	×	ERM 가입	ERM 가입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0), *Convergence Report*.

제4장 EMU 확대 전망

1. EU 가입국

EU 회원국 중 EMU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인데, 이중 영국과 덴마크는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EMU 가입에 대한 예외조항(opt-out clause)이 적용되고 있다. 즉 이들 EU 회원국은 EMU가 출범한 이후에도 EMU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유로화 가입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EMU 제1차 참가국을 결정할 당시 발표된 수렴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모든 수렴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환율기준만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는 EU회원국이지만 EMU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outs”이라는 명칭에서 “pre-ins”로 전환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EMU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희망한다면 EMU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들의 ERMⅡ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EMU 회원국과 “pre-ins” 국가들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영국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Pound)에 대하여 자긍심이 유난히 높은 영국은 지금까지 EMU 가입 반대여론이 항상 찬성여론을 압도하였다. 특히 EMU 출범 초기 유로화 환율이 약세를 시현하자 영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

욱 확대되었다. 지난 2001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로화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은 유로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39.8%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38.2%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총 응답자의 78%가 유로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로화 도입으로 세금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43.5%가 '그렇다', '유로화 도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57.2%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영국 국민들은 유로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이와 같은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영국의 EMU 가입에 분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1〉 유로화에 대한 영국국민의 여론조사(%)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파운드화의 상실은 곧 국가의 독립성 상실을 의미한다	63.3	24.3	12.4
영국의 경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집행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	59.7	20.1	20.1
유로화 도입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4	57.2	28.4
유로화 도입으로 세금은 증가할 것이다	43.5	20.3	36.2
유로화는 효율적인 통화이다	10.4	49.5	40.1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barometer 2001 - Special Edition.

EU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되돌아볼 때, 영국은 지금까지 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EU(당시 EEC) 창설에 관심을 보

이지 않았으며, 유럽국가와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1973년 EU에 어렵게 가입한 이후에도 EU가 제안하는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영국은 EU 내에서 입지와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EMU 결성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 EU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은 오래 전부터 비롯된 것으로 영국의 가입시기와 일부 관련이 있다 하겠다. 영국의 EU 가입 시기가 우연이지만 오일쇼크로 시작되는 유럽 및 영국의 경제하강기와 일치하였다. 그 전까지 EC 창립국들의 경제는 높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는데, 오일쇼크 이후 EC 경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 경제도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불황의 원인을 EU 가입에 돌리는 경우가 있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창립국에 포함되지 않아, 초기 EU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처음부터 EU에 참여하였더라면, 영국에게 불리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관련 일부 절차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나, 상기 사항은 영국이 가입하기 전에 모두 결정되어 영국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영국 정부는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외에도 자체적으로 5가지의 기준(Five Economic Tests)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EMU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영국이 기타 대륙에 있는 EU 회원국과 경제체제, 경기순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과 EMU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트 조약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기준 이외에 자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EMU 가입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영국은 EMU 가입하기에 앞서 더 많은 사항을

17) 영국은 EU에 가입하면서 CAP관련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처음부터 영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더라면, 영국에게 조금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가지의 기준은 경기순환 정도, 유연성, 투자, 금융서비스, 고용 및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이 중 영국과 기타 EU 회원국과의 경기순환도 즉 경제 수렴도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기준이다. 1997년 5가지의 기준이 발표되었을 당시, 영국은 자체적으로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EU회원국과의 경제수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여 1999년 EMU 가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상기 영국의 5가지 경제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제시한 EU 회원국과의 경기순환도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유럽의회는 영국의 경기수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EMU 가입 반대 이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⁸⁾

18) European Parliament, "EMU: Relations between "ins" and "outs"", pp 33~35.

〈표 4-2〉 유로화 도입을 위한 영국의 5가지 기준

항목	기준	1997년 당시 평가 결과
경기 순환 정도	기타 유로권 국가와의 경제수 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영국의 침체기와 회복기, 즉 경기순 환도가 기타 유로권 국가와 상이하 다. 경제수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
유연성	예측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영국 경제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영국은 특히 노동시장 부문에서 유 연성이 충분하지 않다.
투자	영국의 단일 통화 도입은 투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영국 기업들의 준비가 불완전하다.
금융서비스	유로권 가입은 금융서비스 분 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 가?	금융분야에서 준비가 아직도 필요하 다.
고용 및 성장	유로권 가입은 고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EMU 가입으로 고용 및 성장이 촉 진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이 기타 유로권 국가와의 경제 수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유연성 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경우에 해당 된다.
	결론	영국은 기타 유로권 국가와의 경제 수렴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EMU 가입을 보류해야 한다.

자료: HM Treasury(1997), "UK Membership of the single currency: an assessment of the five economic tests."

영국은 환율기준, 즉 ERMII 가입을 제외한 모든 마스트리트 경제수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는 아직까 지 ERMII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영국은 EMU 가입을 희망할 경우 언 제든지 자국의 통화를 ERMII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경 제수렴조건은 영국의 EMU 가입에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1990년 7월 ERM에 가입한 바 있으며, 환율변동허용폭이 $\pm 6\%$ 로 비교적 넓

은 편이었으나, 1992년 9월 탈퇴하고 말았다. 당시 영국은 파운드화가 고평가되어 환율변경이 불가피했으며, ERM 탈퇴를 택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ERM 참여 실패 경험도 ERMⅡ 가입을 보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영국정부는 원칙적으로 EMU 가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1999년 2월과 200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변혁계획개요(Outline of the Changeover Plan)’을 발표하여 유로화로의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국가변혁계획개요에 따르면, 유로화로의 전환, 즉 영국이 EMU 가입을 결정한 후 유로화를 통용하기까지의 기간이 40개월 이하가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영국은 전환기간을 현재 EMU 회원국보다 짧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i) 영국이 EMU 가입을 결정할 당시 이미 유로화는 통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 ii) 영국은 기존 EMU 회원국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국은 현재 EMU의 비회원국으로 EMU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반면 EMU 회원국과의 경기순환 및 경제수렴도 등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의 유로화 도입은 정부, 의회,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가능할 것이다.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영국 재무성은 5가지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를 영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EMU 가입을 결정할 것이며, 만약에 찬성할 경우, 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국민 투표가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영국의 국민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2001년 6월 초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토니 블레어는 지난 임기 동안 이루지 못했던 EMU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투표 실시 시기, 유로화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9월 덴마크에서 EMU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영국 정부는 국민투표 실

시 결정에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보인다. 5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는 2003년 6월 전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그전에 정부가 대대적인 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만 제기될 뿐이다.

나.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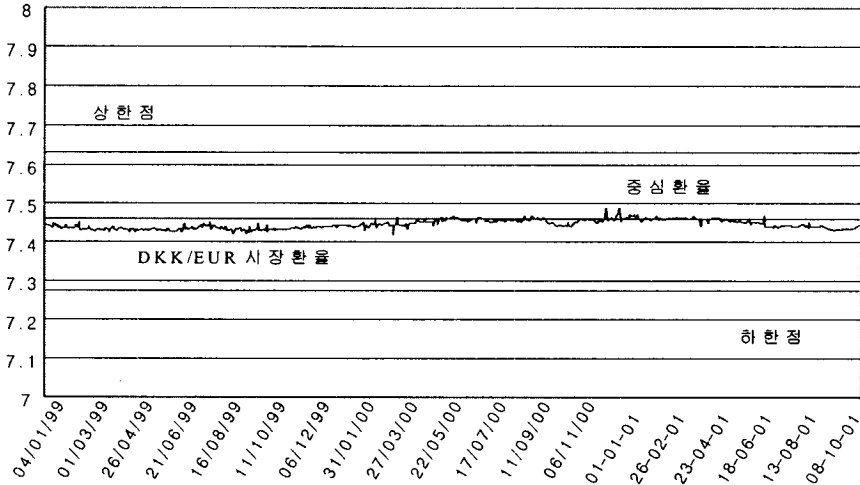
덴마크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EU 경제와의 통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덴마크의 통화인 크로네(Krone)화는 스웨덴 및 영국과 달리 유일하게 ERMⅡ에 참여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덴마크는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9월 EMU 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부결로 처리되었듯이, 덴마크 국민들은 EMU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당시 집권당은 덴마크의 EMU 가입에 대한 편익을 널리 홍보하였으나 덴마크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EMU 가입 반대 근거는 덴마크 국민들이 지금까지 유로화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EMU 가입 없이도 자국의 통화가 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ERMⅡ에 참여하고 있는 덴마크의 크로네는 ERMⅡ가 정하는 $\pm 15\%$ 의 환율변동허용폭보다 훨씬 낮은 $\pm 2.25\%$ 안에 유지되고 있다.¹⁹⁾ <그림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로에 대한 크로네의 환율의 변동폭은 매우 일정하다.

또 덴마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은 독일 다음으로 EMU 비회원국인 영국과 스웨덴인데, 이들의 EMU 가입에 따라 덴마크의 EMU 가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9) 유로화에 대한 크로네의 중심환율은 7.46038임. 즉 크로네/유로의 환율변동허용폭의 상한점과 하한점이 각각 7.62824와 7.29252임.

〈그림 4-1〉 크로네/유로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덴마크는 마스트리트 조약을 받아들일 때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국민들을 1992년 처음 투표에는 반대하였다가 결국 1993년 실시된 두 번째 투표에서 EMU 예외조항(opt-out clause) 등을 추가해주는 조건으로 조약을 받아들인 바 있다. 현재 덴마크는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4가지 항목(EMU 가입, 방위, 시민권, 사법 문제)에 대해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덴마크의 국민들이 EMU를 포함한 모든 EU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덴마크 국민들 사이에 몇 가지 예외조항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확대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유로화가 통용되는 2002년에는 EMU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다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0년 EM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상황에서 재투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덴마크 정부도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1999년에 '국가변혁개요(Outline National Changeover Plan)'를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덴마크가 EMU 가입을 찬성할 경우 유로화로 어떻게 전환될지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다. 덴마크는 우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입이 결정될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EMU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2~3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유로화 주화와 지폐를 도입할 전망이다.

다. 스웨덴

스웨덴도 영국과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의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으나, 국민의 반대로 인해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EMU 가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전망이다. EMU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2000년 말 덴마크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로 국민투표 시기 결정에 더욱 신중해졌다. EMU 가입 반대 이유는 스웨덴 국민이 스웨덴 경제가 EMU 참여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유로화 가입이 스웨덴의 후한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웨덴은 1, 2차 세계대전 동안 중립국의 지위를 지킨 바 있다. 또 EU에 가장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로 1995년부터 회원국이 되었다.²⁰⁾ 그러므로 EMU와 같이 구속력이 강한 동맹의 가입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와 자율적인 금융정책이 상실되는 것을 기타 회원국보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통화 크로나(Krona)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ERM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중에 환율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 국민이 EMU 가입을 찬성할 경우, 스웨덴 정

20)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도 1995년 EU에 가입함.

부는 우선 크로나화를 ERMⅡ에 참여시킬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덴마크, 영국과는 달리 마스트리트 예외조항이 해당되지 않아, 그리스와 함께 유럽집행위원회가 2000년에 실시한 경제수렴보고서의 평가 대상이 되었다. 평가 결과는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과 2000년 2차례 평가 실시시 ERMⅡ 가입 조건 이외에 기타 조건을 매번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스웨덴은 2000년 수렴보고서 작성시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에 속해 경제수렴조건의 기준치 결정에 참고가 되기도 하였다.

〈표 4-3〉 스웨덴의 경제수렴조건 충족현황

(단위: %, 연리 %)

	1998년 3월		충족 여부	2000년 3월		충족 여부
	기준치 (reference value)	스웨덴		기준치 (reference value)	스웨덴	
물가	2.7	1.9	○	2.4	0.8	○
금리	7.8	6.5	○	7.2	5.4	○
재정	-3.0	-0.8	○	-3.0	1.9	○
	60.0	76.6	○	60.0	65.5	○
환율	ERM 가입	ERM 미가입	×	ERM 가입	ERM 미가입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0), *Convergence Report*.

2. EU 가입후보국

최근 EU 가입희망국가들과 EU간의 공식가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EU의 확대는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U와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동구 10개국이며, 이외에도 말타, 사이프러스, 터키이다. 이들을 합해서 EU 가입후보국(또는 후보국)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으나 EU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들의 EU 가입은 2004년부터 시작될 것이며, 2010년까지 13개 후보국 모두가 EU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국들은 EU에 가입한 후 EMU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들은 서구경제 권으로의 편입을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EMU 가입을 희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EMU 가입요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으며, 이들의 EMU 가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가. EU 가입후보국들의 EMU 가입 절차

EU 가입후보국들은 EMU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EU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EMU 참여 자격은 EU 회원국에게만 있으며,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삼는 것도 EMU 회원국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EU 가입에 앞서 EMU에 가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후보국들의 EMU 가입은 3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EU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조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은 정치적 조건, 경제적 조건, EU규약 준수 조건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음과 <표 4-4>와 같다. 둘째, EMU 가입조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한 후 EMU에 가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셋째, 유로화 주화 및 지폐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야 유로화는 후보국의 진정한 단일 통화가 될 것이다.

〈표 4-4〉 코펜하겐 조건

	내 용
정치적 조건	민주주의, 법치, 인권 및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institutions)의 확보
경제적 조건	현존하는 EU내 경쟁압력과 시장지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물론, 실질적인 시장경제기능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
EU 규약 준수 조건	단일시장, 기술표준, 환경, 사법제도까지를 포괄하는 방대한 EU 규약(acquis communautaire)을 내국법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EU 집행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한 후보국 중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6개국이 코펜하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1998년 3월부터 가입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6개국 즉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말타와의 가입협상은 2000년 2월 착수되었다. 터키는 가입 협상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후보국들과 EU간 쌍무협상이 총 31개의 협상분야 가운데 제도 및 기타 분야를 제외한 29개 분야에 대해 시작되었다. <표 4-5>는 중·동구 10개 후보국들의 EU 가입협상 진전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별 진전상황이 상이하나 2001년 8월 현재 8~22개 분야의 협상이 잠정 종료되었다. 가장 성적이 좋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이르면 2004년 초에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²¹⁾

21) 지금까지 4차례 있었던 EU의 회원국 확대를 살펴본 결과 가입협상이 개시된 후 최종 가입확정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됨.

〈표 4-5〉 중·동구 10개 후보국들의 EU 가입협상 추이(2001년 8월)

	협상종료 분야	협상진행 분야	협상미착수 분야
헝가리	22	7	-
슬로베니아	21	8	-
체코	19	10	-
에스토니아	19	10	-
슬로바키아	19	10	-
리투아니아	18	11	-
폴란드	17	12	-
라트비아	16	13	-
불가리아	11	8	10
루마니아	8	7	14

자료: Deutsche Bank Research(2001), *EU Enlargement Monitor*.

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여부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한 후 궁극적으로 EMU 가입을 회구하고 있는 바, EMU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EU 가입 즉시 EMU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4-6>은 환율 수렴기준을 제외한 모든 마스트리트 수렴조건에 대한 후보국들의 1999년과 2000년 상황이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국들은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어도 2가지의 수렴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2000년 기준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물가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물가도 1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어 성적이 가장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라트비아는 금리기준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리가 10%를 조금 웃돌고 있어 수렴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중·동구의 개혁선도국인 폴란드와 헝가리는 정부부채 기준 한가지만 충족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경우에는 1999년 기준으로 4가지 수렴기준 중 어떠한 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표 4-6>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후보국들은 재정부문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후보국들이 인플레이와 금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 두 기준은 향후에도 수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마스트리트 수렴기준의 충족여부와 구조개혁 진전 및 경제발전 수준 사이에는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동구의 개혁선도국인 폴란드와 헝가리의 수렴조건 충족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 4-6> EU 후보국들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현황

	물가		금리	재정적자		정부부채	
	1999	2000	2000.11	1999	2000	1999	2000
기준	2.0	2.8	7.4	-3.0	-3.0	60.0	60.0
불가리아	2.6	10.3	5.0	0.2	-0.7	82.8	76.9
체코	1.8	3.9	7.6	-4.0	-4.2	15.0	17.3
에스토니아	3.1	3.9	7.1	-4.1	-0.7	6.8	5.3
헝가리	10.0	10.0	9.3	-5.4	-3.1	60.5	55.7
리투아니아	0.7	0.9	8.2	-5.7	-3.3	22.5	23.7
라트비아	2.1	2.6	10.4	-5.3	-2.7	13.6	14.1
폴란드	7.2	10.1	13.1	-2.1	-3.5	44.4	40.9
루마니아	45.8	45.7	43.4	-2.1	-3.8	24.4	22.9
슬로베니아	6.1	8.9	n.a.	-1.3	-2.3	25.1	25.8
슬로바키아	10.6	12.1	7.7	-5.7	-6.7	29.8	32.4
터키	64.9	54.9	n.a.	-21.8	-11.0	69.2	57.8
말타	2.1	2.4	n.a.	-7.8	-6.6	60.1	60.6
사이프러스	1.1	4.9	n.a.	-4.0	-3.2	62.7	63.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1), *Regular Reports*.

Deutsche Bank Research(2000), *Eastward enlargement of the EU and EMU-implications for the Euro?*

다. EU 가입규약 충족 여부

후보국들은 EU 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조약 및 법률을 통해 만든 EU법에 명시된 모든 규율과 의무사항을 수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EU 가입규약(Acquis Communautaire)인데, 이 중 EMU와 관련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이익 차원의 환율정책 수행 의무와 ERMⅡ에 참여, 둘째, 공동체 이익차원의 경제정책수행 의무 및 EU의 경제정책 협조와 감독제도에 참여, 셋째, 중앙은행의 독립성, 넷째, 자본이동의 자유화, 다섯째, 건전한 은행체계 및 금융시장을 위한 적절한 규율제도 마련이다. 그러므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에 앞서 후보국들이 상기 EMU관련 EU 가입규약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후보국들의 환율제도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이들은 통화위원회제도 형태의 고정환율에서부터 변동환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국의 대다수는 환율변동의 기준이 되는 통화 내지는 바스켓 구성통화를 유로화로 정하고 있다.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한 후 ERMⅡ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들은 자국의 환율제도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통화위원회제도 또는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와 말타는 ERMⅡ 가입 후에도 기존의 환율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크로링페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헝가리와 폴란드나,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는 ERM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환율제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ERMⅡ 가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환율을 유로화에 고정(Euroisation)하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EU 후보국들의 환율제도(2001년 3월 기준)

국가	환율제도	연동기준통화	기타
불가리아	통화위원회제도	EUR	
체코	관리변동환율제	EUR가 비공식적인 기준통화	
에스토니아	통화위원회제도	EUR	
헝가리	크롤링페그제도	EUR	변동환율폭 : ±2.25%
라트비아	고정환율제도	SDR	변동환율폭 : ±1%
리투아니아	통화위원회제도	2001년 중순까지 USD에 연동 2001년 중순부터 EUR에 연동	
폴란드	크롤링페그제도	EUR	변동환율폭 : ±2.25%
루마니아	관리변동환율제도		
슬로바키아	관리변동환율제	EUR가 비공식적인 기준 통화	
슬로베니아	관리변동환율제	EUR가 비공식적인 기준 통화	
사이프러스	고정환율제도	바스켓: EUR 포함	
말타	고정환율제도	바스켓: EUR(56.8%), USD(21.6%) GBP(21.6%)	변동환율폭 : ±0.25%

자료: ECB(2001), *Review of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후보국들이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²²⁾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EM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중앙은행법이 EU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후보국 중앙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경제·통화동맹의 필수요소로서 EU 가입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후보국들은 자본이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 시장의 개방으로 자국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후보국들의 일부는

22) ECB와 EU의 모든 회원국 중앙은행으로 구성됨.

OECD에 가입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본통제가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의 자본 자유화 진척정도는 매우 취약하다.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부문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후보국들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후보국들의 금융 부문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후보국의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EMU 가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아직까지 후보국들은 EU 가입규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스트리트 경제수령조건과 함께 EU 가입규약 충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제5장 EMU 및 유로화 위상 변화

EMU는 그리스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11국에서 12국으로 증가하였다. <표 5-1>은 그리스가 포함된 유로권의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의 가입으로 유로권의 인구가 29,200만 명에서 30,150만 명으로 약 3.6% 증가하였으며, 총 GDP가 61,270억 유로에서 62,45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는 EU 총 GDP의 약 2%만 차지할 뿐, 경제규모가 작은 편으로 EMU 경제규모 또는 향후 정책 방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표 5-1> 그리스가 포함된 유로권의 거시경제지표

항목	연도	단위	EMU11	그리스를 포함한 EMU12
인구	2000	백만명	292	302
GDP	1999	전세계대비 %	15.8	16.2
GDP	1999	10억 유로	6,127	6,245
1인당 GDP	1999	유로	21,013	20,667
실업률	1999	%	9.9	10.0
수출	1999	GDP대비 %	13.3	12.9
수입	1999	GDP대비 %	11.9	11.8
경상수지	1999	GDP대비 %	-0.1	-0.2
주식시장 자본화	1999	GDP대비 %	64.7	66.1

자료: ECB(2001), *Monthly Bulletin*.

만일 영국을 비롯한 “pre-ins” 국가들과 후보국들까지 EMU에 가입한다면 EMU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EMU 회원국

이 현12국에서 27국²³⁾으로 확대될 경우, EMU는 인구, 총 GDP 등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전세계에서 EMU와 유로화의 위상을 초래할 것이다. <표 5-2>는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바탕으로 EMU11, EMU27,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것이다. EMU11의 인구는 이미 미국과 일본을 초과하고 있는데, EMU가 27개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약 48,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미국(27,200만)과 일본(12,700만)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총 GDP는 64,980억 달러에서 88,2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OECD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1%에서 35.5%로 확대될 것이다.

(표 5-2) EMU 확대: 핵심경제지표 전망(1999년 말 기준)

항목	단위	EMU 11	EMU 27	미국	일본
인구	백만명	291	481	272	127
GDP	십억달러	6,498	8,828	9,255	4,380
일인당GDP	달러	22,300	18,336	34,090	34,490
OECD 전체GDP에서 비중	%	26.1	35.5	37.2	17.6
실업률	%	9.4	9.5	3.9	4.9
정부지출	GDP대비 %	47.8	46.1	30.1	38.1
재정수지	GDP대비 %	-1.2	-0.8	1.0	-9.4
정부부채	GDP대비 %	72.0	66.9	59.0	116.0
주식시장자본화	GDP대비 %	85.0	103.5	181.0	102.0
채권 발행	GDP대비 %	111.4	107.5	180.4	152.1

자료: Deutsche Bank Research(2000), *Eastward enlargement of the EU and EMU - Implications for the Euro?*

유로화는 EMU 확대로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국제통화의 지위는 경제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로화 사용지역

23) EMU 27개국은 EU15개국 + 중·동구 10국 + 말타 + 사이프러스를 말함.

이 확대됨에 따라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유로화 사용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유로화의 외환결제통화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유로화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비용 감소는 다시 유로화 사용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결제통화로서뿐만 아니라 공적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되어, 외환보유고에서 유로화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1월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유로화가 달러화에 버금가는 국제통화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로화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유로화 가치는 예상과 달리 출범 이후 지속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도 채권시장에서 유로화의 위상이 다소 제고된 것 이외에는 기대와는 달리 거의 위상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화가 아직까지 장부상의 화폐에 머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2002년 1월 유로화가 경화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후보국들만의 EMU 가입은 EMU와 유로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국들의 경제는 소규모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중·동구 유럽 10개국의 총 GDP는 EMU11의 6%에 불과하며, 전세계 수출입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후보국들의 금융시장도 그리 발달하지 못하여, 이들의 가입으로 인한 EMU 경제권 확대와 유로화에 대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후보국 13개국 모두의 가입보다 규모가 크고 발달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1국의 가입이 EMU에 더욱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는 틀림없다.

제6장 결론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MU 1차 참가국에서 제외되었던 그리스는 EMU 가입을 최대 목표로 삼고 경제개혁을 단행한 결과 수렴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2001년 1월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물가는 긴축재정, 간접세 감면, 임금억제 정책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기 금리도 하락하였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하였으며, 세금원을 넓히고 탈세를 줄여 세수를 확대하였다. 드라크마화도 ERM에 가입하여 환율안정에도 성공하였다.

현재 그리스는 기타 EMU 11 회원국과 함께 2002년 유로화 주화 및 지폐 통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유로화 주화 및 화폐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가 EMU에 가입한 것은 보다 수월했으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는 유로화가 도입되기 1년 전에 가입함으로써 유로화 통용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기타 11개국과 함께 비교적 여유 있게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MU 1차 참가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현재 EMU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영국, 덴마크 및 스웨덴의 경우와 상이하다. 상기 3개국은 대부분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국민의 반대로 EMU 가입을 보류하고 있으며, 유로화가 통용되고 강제로 전환된 후에야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스웨덴의 통화는 ERMII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환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EMU 가입이 결정된 이후에 자국 통화를 ERMII에 가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EMU 1차 참가국을 결정할 당시 환율기준이 핀란드와 이탈리아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영국과 스웨덴에게도 환율기준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기 3개국 정부가 EMU 가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EMU 가입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면, 국민의 의견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덴마크가 EMU 가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53.1%의 반대와 46.9%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얻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EMU 가입반대 의견이 높으나 반대와 찬성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의 새로운 정부는 EM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2005년 후에 실시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영국은 자체적인 5가지 기준에 대한 평가를 2003년 중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 그 후에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국민투표시기를 2003~2004년으로 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실패로 새로운 덴마크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웨덴 정부도 국민투표 시기를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졌다. 그리고 국민투표 시기가 결정된다 하여도 EMU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3개국의 EMU 가입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즉 “pre-ins”의 EMU 가입은 시기가 불명확할 뿐, 불가피한 상황으로, EU 회원국이면서 EMU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EMU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ins”와 “pre-ins” 사이의 부조화와 마찰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pre-ins”는 “ins”과의 경제수렴도 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pre-ins”의 EMU 가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결속(cohesion)을 다지는 데 방해요소가 될 것이다. EMU에 가입하지 않는 EU 회원국들의 통화를 위해 ERMⅡ가 마련되었으나, 이것은

환율변동허용폭을 對유로화 중심환율에 대해 $\pm 15\%$ 로 정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편이며, 회원국 통화의 조율에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EU는 회원국이 EMU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이 되거나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EMU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길어져 “pre-ins”과 “ins”의 격차가 심화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pre-ins”의 신속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규모가 큰 영국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리스의 EMU 가입은 상기 3개국에게 별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2000년 말 실시된 덴마크의 국민투표 결과의 파급효과가 더 컸다. 당시 그리스의 EMU 가입이 결정된 상태에서 덴마크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덴마크 국민은 EMU 가입을 반대하였으며, 덴마크의 국민투표 후 영국과 스웨덴의 EMU 가입 반대 의견은 확대되었다. 국민들의 의견은 유로화가 통용된 이후에야 조금씩 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장부상 화폐에 머물고 있는 유로화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으나 유로화가 통용되면 신뢰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의 EMU 가입은 EMU 경제권 확대에도 별 영향을 못 미쳤다. 비록 그리스의 가입으로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삼는 지역과 인구가 확대되었으나 그리스의 경제규모가 작아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EMU 가입은 EMU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일어난 확대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EMU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EMU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으나 그리스를 새로운 회원국을 맞이하였으며, 이는 EMU 제도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 만큼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EMU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EU 회원국이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만 충족되면 EMU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은 명목조건에 불과하나, EMU 가입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타 실질조건 충족은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조건 충족이 미흡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EMU 회원국 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가입희망국의 EMU 가입을 반대하더라도,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가입희망국은 EMU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과 인구가, 비록 제한적이나,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유로화 사용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유로화의 외환결제통화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유로화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유로화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EMU에 참여하지 않는 EU 회원국이 4국에서 3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비록 그리스의 EMU 가입이 나머지 3국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pre-ins” 국가의 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입지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들의 EMU에 대한 시각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섯째, 그리스 가입은 앞으로 일어날 EMU 확대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EU 가입희망국가들과 EU간의 공식가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EU의 확대는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EMU 가입을 회구하는 바 EMU는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한편, 후보국들은 EMU에 가입함으로써 예상되는 비용보다 이익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의 EMU 가입은 EU 회원국에게 적용되었듯이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국들 중 모든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수렴기준에 상당히 근접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등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보국들은 EMU 관련 EU 가입규약도 충족해야 하는데,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아직까지 실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경제수렴조건 중 환율 조건이 ERMⅡ에서 참여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후보국들은 EU 가입 즉시 ERM에 가입하더라도 EU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EMU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²⁴⁾ 현재 후보국들과 EU 가입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국들 중 31개 분야 중 22개 분야의 협상이 잠정 종료된 국가도 있다. 이와 같이 가장 성적이 좋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이르면 2004년 초에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EU 가입한 이후 곧바로 ERMⅡ에 가입하면, EMU 가입도 이르면 2006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U 가입 즉시 EMU 가입 조건인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MU 가입은 EU가입 후 훨씬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 은행은 후보국들의 EMU 가입이 2010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²⁵⁾

후보국들이 모든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며, EU 가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시기상조라 하겠다. 또 후보국들의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 충족은 반드시 이로온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즉 EMU의 중·동구로의 성급한 확대에는 위험이 산재해 있다.

후보국들이 EMU 가입요건을 준수하게 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인플레이 억제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친 규율준수로 인한 투자위축과 성장둔화 지연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EMU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후보국의 가입으로 EMU는 분명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클 것이나 동시에 이질성이 상당히 높은 경제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국들은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해야만 EMU 가입이 가능하나, 수렴조건이 충족되었다 하여도 후보국과 기존 EMU 회원국

24) 후보국들에게도 환율조건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5) Deutsche Bank Research(2000).

과의 소득, 생산성, 임금 등과 같은 면에서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이는 EMU 내부의 갈등과 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EMU 심화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국들은 성급하게 EMU 가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벌써부터 경제정책 결정시 마스트리트 경제수렴조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MU 1차 확대는 그리스의 가입으로 출범 후 2년 만에 이루어졌으나, 차기 EMU 확대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후보국들보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덴마크, 영국이 먼저 EMU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득갑. 2001. 「EU의 동구 확대와 시사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현대. 1999. 「유럽통화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김세원 편. 『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 pp. 2~30. 서울: 전영사.
- 한정철. 1999. 「중·동구 국가들의 EMU가입 전망과 시사점」. KIEP 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pp. 103~15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각호.

〈해외문헌〉

- 그리스 중앙은행. Available: <http://www.bankofgreece.gr>.
- 덴마크 중앙은행. Available: <http://www.nationalbanken.dk>.
- 스웨덴 중앙은행. Available: <http://www.riksbank.se>.
- 유럽중앙은행. Available: <http://www.ecb.int>.
- Bloomberg. Available: <http://www.bloomberg.com>.
- De Grauwe Paul. 1997. *The Economics of Monetary Integration*. Third Revise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mark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1999. "Outline National Changeover Plan".
- Deutsche Bank Research. Available: <http://www.dbresearch.com>
- Deutsche Bank Research 2000. Eastward enlargement of the EU and EMU- Implications for the Euro?
- Deutsche Bank Research. 2001. EU Enlargement Monitor.
- ECB. Monthly Bulletin. 각호.
- ECB. 2001. Review of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 EIU. 2001. Country Report.(Available: <http://eiu.com>)
- EMI. 1998. Convergence Report.
- European Commission. 2000. Convergence Report.
- _____. 2001. "EMU: The first Two Years". Euro Papers. No. 42.
- European Parliament. 1999. "EMU and Enlargement: a review of policy issues." Working Paper. Economic Affairs Series.

____. 1998. "EMU; Relations between "ins" and "outs"." Economic Affairs Series.

____. 1998. "EMU and Greece". Briefing No.22.

____. 1999.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and enlargement." Briefing No.34.

Eurostat. Available: <http://europa.eu.int/en/comm/eurostat>

HM Treasury. 1997. "UK Membership of the single currency. An assessment of the five economic tests."

____. 1999. "Outline National Changeover Plan."

____. 2000. "Second Outline National Changeover Plan."

OECD. 2001. "Greece." Economic Surveys.

Pirounakis Nicholas G. 1997. "The Greek Economy." London: Macmillan Press LTD.

Executive Summary

EMU and Enlargement

Hoo-young Chung

In January 1999,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was launched and the single European currency, the Euro, became the national currency of eleven EU countries. The EMU countries have finally reached the last phase of the economic union, a project that was first initiated half a century ago. To arrive at this point, they went through various stages and systems such as the 'snake system' or the EMS, and now they have succeeded in adopting a single currency. The detailed plan for the EMU was formulated in the Maastricht Treaty. This treaty also stipulates that only the countries that fulfilled the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known as the Maastricht criteria, would be admitted to the last stage of EMU.

Greece entered the EMU in January 2001 and became its 12th member. Two years earlier, Greece had not fulfilled any of the Maastricht criteria required to enter the EMU and was rejected membership. Through thorough economic reforms, Greece succeeded in fulfilling all the criteria; in order to enter the EMU, Greece privatized public enterprises, enlarged its tax base, and maintained a tight fiscal policy. A very determined Greek government was at the heart of these economic reforms, but most of all, Greek public opinion was totally in favor of EMU, which made the reforms easier.

Unlike Greece, the UK, Sweden and Denmark, the other three EU

countries not participating in the EMU or 'pre-ins', postponed their membership because of hostile public opinion towards the EMU. As times passes, their EMU participation in the future becomes inevitable. Most of the pre-ins fulfill the 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 required to enter the EMU. However whereas the currency of Denmark participates in the ERM II, the currencies of Sweden and UK do not. Therefore, as ERM II participation is a prerequisite for entering the EMU, the UK and Sweden will have to join the ERM II before participating.

It is assessed that Greece's participation in the EMU did not have any impact on the pre-ins' public opinion. On the contrary, the Danish referendum held in September 2000 had a much larger influence. At the time the referendum was held, Greece's EMU membership had already been decided. However, the Danes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EMU in response to the negative outcome of the referendum and following this decision, opinions against membership in the UK and Sweden increased.

As such, the pre-ins rely on public opinion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EMU. After the defeat of the Danish referendum, none of these countries will attempt to hold referendums any time soon. Therefore, their participation is not likely to happen in the near future.

Greece's participation in the EMU also means enlargement of the EMU, marking the first time that the EMU has adopted a new member after its launch. This first enlargement is predi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future EU accession countries. Negotiations with candidates for EU accession are currently under way,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EMU is also a matter of consideration. Of course, the candidate countries will have to become EU members before any EMU membership is authorized. As continuing progress

towards EU enlargement is made, after a round of accession negotiations with the most successful candidate countries, 22 chapters among 33 were provisionally closed.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these countries, Hungary, Slovenia, the Czech Republic, Estonia and Lithuania, will enter the EU in 2004. If these countries decide to participate in the ERM II as soon as they enter the EU, technically they could become EMU members as early as 2006.

However, although Estonia and Latvia have enormously converged toward the Maastricht convergence criteria and most of the candidates fulfill the government debt criterion, none of them fulfill all of the Maastricht criteria. And in addition to the Maastricht criteria, the candidates must also fulfill the 'EU *acquis communautaire*' related to the EMU. However, among other factors, the candidates are very far from achieving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Therefore, it is likely to be some time before their membership to the EMU.

As Greece entered the EMU, the number of countries using the Euro as their national currency has also increased from eleven to twelve, elevating the EMU international position. Moreover, if the Euro goes east, the EMU will form a larger and more powerful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he Euro's role in international markets will increase.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1. 12)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전기업을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李光勳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李晟鳳
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李昌在外
97-09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濤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坡
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①	張亨壽·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황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李昌在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李昌在外·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徐錫興

-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 II
Byung-il Choi · Eun Mee Kim
-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 · 元容杰
-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教
-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 · 李性美
-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 · 洪翼灼
-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 · 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 · 鄭在完 · 金琮根 · 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黃祥仁 · 王允鍾 · 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蔡旭 · 金準東 · 宋有哲 · 尹美京 · 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 · 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李明憲 · 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 · 李長榮 · 李漢煥 · 金龍奎 · 崔重熹 · 許琮 · 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魚明根 · 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 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主要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主要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3	은행서비스 市場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朴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子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朴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朴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徐暢培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變化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教·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次要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朋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字植·白珍玢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變化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투명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金于珍·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金鴻律

-
-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輝 · 金眞梧
- 00-05 國際協力體 設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전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

鄭厚榮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1997)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학과 졸업(19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hooyoung@kiep.go.kr)

著書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1998)

『유로貨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2001) 외

지역리포트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6041-9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성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C	(주간)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2만 5천원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물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물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